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준범** · 이 현***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명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15개 중학교,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로부터 유효설문지 1,041부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목적에 일치하는 학생 568명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의 설명요인으로써 아동기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경험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성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에 정적 영향을 받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Aroian Test을 거쳐 공격성이 아동기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경험과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공격성과 같은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함으로써 청소년의 데이트폭력 예방과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이성교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첫째, 다양한 매체와 주요 기관들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전문적 의료·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아동들의 부정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안정화 시키는데 노력한다. 셋째, 학대아동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고무하는 이성교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성평등상을 세우도록 한다.

주제어 :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데이트폭력, 공격성, 구조방정식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성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과제임.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교신저자, hyunlee1237@gmail.com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끔직한 폭력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옛 연인이었던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여서 더욱 놀랍다. 여성이 이별을 고하자 남성이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심할 경우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의 수만 2만5천 건이 넘는다고 한다(MBC, 2013).

미국에서는 이미 데이트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2월을 ‘데이트폭력 근절의 달’로 정하고 환기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의 적극적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가정이나 이성 관계와 같은 사적인 일에는 외부인의 간섭을 꺼려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초반에 억제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과연 어느 수준까지 데이트폭력으로 봐야하는지 주장도 다양하여 실질적 대처기준이 모호하고 대처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다(장윤경, 2002).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의 영향요인으로 가정의 기능적인 면을 주목해 왔다.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족 내의 경험이 자녀의 그릇된 정서적 기능을 야기하고 성 가치관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연구들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박하나, 장수미, 2012; 서경현, 2002; 유선영, 2000; Matud, 2007). 또 하나의 흐름은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들이 대학생 혹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이지연, 오경자, 2008). 하지만 청소년기의 주된 관심이 이성애에 있으며 과거에 비해 이성교제의 시기가 앞당겨졌음을 고려할 때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 실태조사에서 첫 성관계 경험대상은 이성친구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첫 경험한 연령은 평균 14.6세로 10년 전에 비해 1.0세가 감소했음이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성 관련 연구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폭력, 특히 직접적인 신체학대

가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가 아동기에 받은 가정 폭력의 경험이 심리적 요인인 공격성으로 발달하여 데이트폭력에 이르는 매개효과도 예상되므로(노치영, 박성연, 1992) 추가적으로 연구에 포함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주요 과제인 건전한 이성교제와 바람직한 이성관 확립을 위한 실증자료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로부터 청소년의 데이트폭력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정책적·실천적 함의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요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1) 주요 변수들의 개념

가정폭력의 구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상별로 살펴본다면 부부간 폭력, 자녀학대, 형제간 폭력 등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영향에 커다란 요인으로 주목된다. 자녀학대는 직접적으로 자녀가 받는 일차적 피해도 문제지만 잠재되어 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이차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김평화, 윤혜미, 2013; 조은정, 2013). 신체적 학대는 외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문제를 남기기도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으로서 부모의 폭력적인 모습을 자녀가 반복적으로 접하고 익히게 되면서 세대 간 폭력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김성일, 2005; 김혜영, 석말숙, 2003; 노치영, 박성연, 1992).

Kempe와 Helfer(1972)와 같은 학대관련 초창기 연구자들은 아동학대를 ‘우연한 사고가 아닌 부모 또는 양육자에 의한 행동 및 방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신체적 상해’로서 정의하였다. 반면, 최근의 아동학대의 연구들은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바라보기보다 ‘신체적·정신적·성적·방임’을 아울러 광의적으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개념은 문화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경향이 크며 사회마다 그

강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강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며 교육을 목적으로 훈육차원의 체벌을 부모의 사랑으로 여겨왔다(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2009). 그러므로 자연히 가벼운 신체학대를 훈육으로 여겨 신체적 학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도 성장과정 가운데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51.8%로 나타나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에게 아동기의 회상은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여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보통 정서적 폭력보다는 신체적 폭력이 기억 속에 강력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확률이 높으며 측정에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광범위하고 중첩적인 학대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좁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학대경험을 청소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직접 받은 신체학대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공격성은 사회와 문화적 기준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보통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의도’와 ‘결과’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로 나누어지기도 한다(김현정, 2004). 공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성유형을 세분화하여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성의 연구초기에 Buss와 Durkee(1957)는 공격성을 공격성과 적의성으로 구분하고 언어적 공격, 흥분, 폭행 등을 공격성의 개념에, 원한 및 의심을 적의성에 포함시켰다. 한편 과거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Crick과 Grotpeter(1995)는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표출된 공격성과 내부적 요소인 적의성 및 분노를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데이트폭력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겪을 수 있는 부정적 행동들이다.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하면 이성교제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공격행동들까지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은 정서폭력의 형태로 흔히 나타나며 친밀함을 보이는 이성교제관계에서는 이를 오인하여 받아들이기 쉽고 허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윤진 외, 2012). 더불어 데이트폭력은 성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정서상 청소년들의 성을 논하

거나 측정하는 데에 거부감이 많았으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행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성 인식도 개방화 되었다(홍봉선, 2002). 이제는 이성교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교제동안의 애정표현도 늘어나 상당한 신체접촉이 나타나고 있다(김혜원, 2002).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아동기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데이트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세대 간에 전이된다는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은 사회 학습의 관점을 지닌 이론들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사회학습이론들은 청소년들이 학습한 가치와 태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Sutherland(1960)의 차별접촉이론은 사회학습이론관점을 지닌 대표적인 이론중의 하나이다.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친밀한 관계를 지닌 이와와 차별적 접촉 혹은 상호작용이 가치나 태도를 습득하는데 영향을 주고 결과로서 일탈 및 범죄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종의 사회화 과정으로서 만약 법 위반에 더욱 호의적인 사람과 자주 접촉하고 상호작용한다면 자연스레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보통 학습의 정도는 만남의 빈도, 기간, 강도, 우선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김준호 외, 2003).

학습되는 것은 단순히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 합리화 방법, 태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학대 아동의 폭력학습에 대입하여 설명해 본다면, 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학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동시에 애착적 존재인 부모에게서 친밀함을 느낀다. 자녀에게 부모는 강력한 사회화의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같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접촉하고 있다는 점, 학대라는 강도 높은 행위가 수반되는 부분 등에서 차별접촉이론의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킨다. 결과적으로 학대받은 자녀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학대의 모습과 공격적인 모습을 학습하여 문제 봉착 시 해결 방법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접촉이론을 토대로 한 주요변수들의 이론적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과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수차례 검증되었다(김경은, 2012; 송윤오, 김종수, 조재현, 박배근, 김충희, 2011;

Belsky, 1981). Hershorn과 Rosenbaum(1985)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에게서 높은 공격성과 문제행동들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경험을 지닌 자녀가 공격성을 매개화하여 학교폭력에 이르는 과정을 검증하기도 하였다(김재엽, 이순호, 2011). 가정폭력 중에서도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학대가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김재철과 최지영(2011)은 부모의 학대가 자존감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거쳐 공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순조(2012)는 학대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 왔다(정혜정, 2003; Riggs & O'leary, 1996; Sigelman, Berry & Wiles, 1984). 아동기에 받은 학대경험은 그들이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해결방안으로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이끈다. 부모가 보이는 부적절한 문제해결방법을 아동기에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강화하여 자신의 기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최지현, 2005). 이지연과 오경자(2008)는 아동기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이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을 통해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확인하였다. 한편, 학대경험과 데이트폭력과의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한 연구들도 있었다(서경현, 이영자, 2001;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지역과 학교구성이 다르고 학대 및 데이트폭력의 변수구성과 분석방법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 간혹 두 변수 간의 연구결과가 비일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공격성 또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나타났다. Bookwala, Frieze, Smith and Ryan(1992)는 데이트폭력의 예측변수들을 남녀로 구분하여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남자학생에게는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여자학생들은 대인관계 공격성의 수준과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차별접촉이론을 기반으로 선행연구로부터 아동기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경험, 공격성, 그리고 데이트폭력 간의 영향 관계를 발견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아동기 신체학대경험과 청소년의 데이트폭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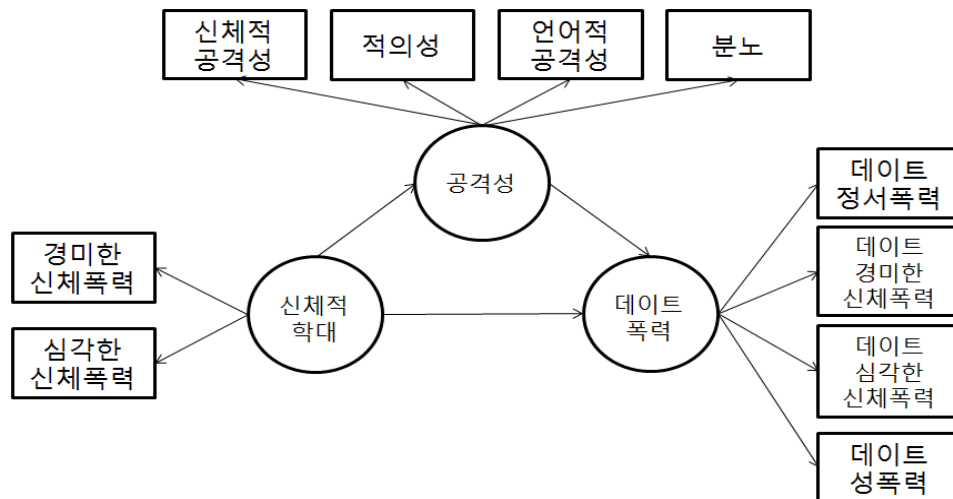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비확률표집방법인 판단 및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경기도 남서부 지역의 중학교,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총 15개 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년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진행은 연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자기 기입 하도록 하였다. 불성실·불확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설문지 1,041부에서 데이트폭력에 노출가능성이 있는 이성교제경험 청소년 총 568명의 케이스를 선택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청소년의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오혜정(2004)이 Straus(1998)의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를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본래 척도에서 정서적 학대부분을 제외하고 신체적 학대 9문항을 이용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경미한 신체학대 4문항과 심각한 신체학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학대 강도의 구분은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과격한 폭행인가를 기준으로 경미와 심각으로 나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부 → 나’, ‘모 → 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응답의 범주는 5점 척도로써 ‘없음(1)’, ‘일 년에 한두 번(2)’, ‘한 달에 한두 번(3)’, ‘1주일에 1회 이상(4)’, ‘거의 매일(5)’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아동기에 겪은 신체학대경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39로 나타났다.

2) 데이트폭력

청소년들의 데이트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 Scale)와 Shepard와 Campbell(1992)의 ABI(Abusive Behavior Inventort)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에 담고자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8문항, 정서적 폭력 관련 8문항, 성폭력 측정 7문항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신체적 폭력은 경미한 신체폭력 3문항과 심각한 신체폭력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폭력의 구분은 위의 아동기 신체학대경험과 같이 폭행의 강도와 흉기사용 여부에 따라 나뉜다. 정서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 위협, 억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성폭력에서는 성적 놀림부터 강간까지 다양한 성적 행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질문내용은 이성교제 중이나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교제상대에게 데이트폭력을 행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응답범주는 ‘없음(1)’, ‘교제중 1-2번(2)’, ‘교제중 3-4번(3)’, ‘교제중 5-6번(4)’, ‘교제중 7번 이상(5)’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73로 나타나 연구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

3)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세리(2007)가 Buss와 Durkee(1957)의 BDHI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6문항)과 적의성(5문항), 언어적 공격성(6문항)과 분노(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3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쳤다. 우선 응답자들의 설문지를 취합한 후 부호화 과정 및 오류 검토 작업을 거쳐 자료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SPSS 18.0을 가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본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공격성, 데이트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와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AMOS 7.0을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방식을 실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기위해서 상대적 적합도 지수 TLI 및 CF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를 함께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에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검증과 Aroian- Test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선행조건으로 주요변수들의 정규분포조건을 충족해야하며, 특히 구조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모델추정기법인 최대우도법(ML)은 다변인 정규분포를 가정화하는 분석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기준 값으로서 왜도의 경우 2.0, 첨도의 경우 4.0이 넘지 않아야 정규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 중 폭력행위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응답자 간 차이가 뚜렷하여 왜도와 첨도에서 문제를 보였다. 그러나 Bentler와 Yuan(1999)은 표본이 120개 이상이면 표본의 비정규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최대우도법을 선택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Hair, Black, Babin and Anderson(2009)도 정규가정 미충족시에도 최대우도법의 추정이 보다 타 추정법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분석방법에 최대우도법을 적용하면서 보완책으로서 정규분포충족이라는 선행조건에서 자유로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김계수, 2010).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1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63명(46.3%), 여학생이 305명(53.7%)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고1(257명, 45.2%)과 고2(197명, 34.7%)가 중학교의 수보다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자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별 및 학년 분포특성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적을 보면 중 165명(29.0%)을 기준으로 상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생활수준에서는 보통 328명(57.7%)을 중심으로 고르게 나타난 편이다. 종교에서는 '종교없음'이 258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가 181명(31.9%), 불교가 58명(10.2%), 천주교가 50명(8.8%)으로 다음을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263	46.3
	여	305	53.7
	계	568	100.0
학년	중1	45	7.9
	중2	23	4.0
	중3	46	8.1
	고1	257	45.2
	고2	197	34.7
	계	568	100.0
학력수준(성적)	하	66	11.6
	중하	150	26.4
	중	165	29.0
	중상	125	22.0
	상	62	10.9
	계	568	100.0
생활수준	매우 부유한편	21	3.7
	비교적 부유한편	117	20.6
	보통	328	57.7
	비교적 어려운편	89	15.7
	매우 어려운편	13	2.3
	계	568	100.0
종교	기독교	181	31.9
	불교	58	10.2
	천주교	50	8.8
	유교	6	1.1
	기타	15	2.6
	없음	258	45.4
	계	568	100.0

표 2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청소년이 경험한 신체학대경험은 평균이 1.250, 데이트 폭력은 1.143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그보다 약간 높은 2.314의 수치를 보였다. 왜도 첨도는 정규분포 기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앞서 말한 대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체학대경험	1.250	.485	3.730	18.408
공격성	2.314	.804	.357	.243
데이트폭력	1.143	.454	5.670	37.801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아동기의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은 공격성과 정적(+)상관관계($r = .279, p < .001$)을 보였으며, 데이트폭력도 정적(+)상관관계($r = .296, p < .001$)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데이트폭력과 정적(+)상관관계($r = .344, p < .001$)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공격성	데이트폭력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1		
공격성	.279***	1	
데이트폭력	.296***	.344***	1

*** $p < .001$

3.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1) 측정모형 분석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각 척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영역들을 기준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보통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를 논의할 때는 이 세 가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며 각자의 특성으로 서로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Browne과 Cudeck(1992)에 따르면 TLI와 CFI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95이상일시 적합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RMSEA의 경우에는 보통 .10이하까지 긍정적인 적합도로 인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TLI가 .958, CFI이 .970, RMSEA가 .085로 나타나 기준 값들을 충족하였으며 χ^2 검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 다음 단계인 주요변수검증진행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요변수들의 모든 하위 측정변수들이 비표준화 계수 .6이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재변수들을 잘 반영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 경미한 신체학대	1.000	.878		
	→ 심각한 신체학대	.942	.967	.065	14.392***
공격성	→ 신체적 공격성	.963	.762	.042	22.893***
	→ 적의성	.989	.843	.036	27.447***
	→ 언어적 공격성	1.000	.912		
	→ 분노	.952	.849	.034	27.812***
테이트 폭력	→ 테이트 정서폭력	1.000	.847		
	→ 테이트 경미한 신체폭력	.962	.947	.031	31.296***

잠재변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 데이트 심각한 신체폭력	.830	.920	.028	29.932***
	→ 데이트 성폭력	.718	.750	.034	21.263***
X ² (df/p)		162.234(32/.000)			
TLI		.958			
CFI		.970			
RMSEA		.085			

* $p < .05$, *** $p < .001$

2)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공격성,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 신체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는 정적(+)방향(추정치= .477, $p < .001$)으로 나타났고, 아동기 신체학대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추정치= .250,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는 정적(+)방향(추정치= .157, $p < .001$)으로 나타나 공격성은 직·간접으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로 역할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통하여 얻은 간접효과 크기는 .073으로 미약하지만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또한 증가하였다. 그리고 아동기의 신체학대경험이 심할수록 데이트폭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간접효과 크기(표준화)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 공격성	.477	.292	.072	6.604***	
공격성 → 데이트폭력	.157	.251	.028	5.616***	.073*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 데이트폭력	.250	.244	.045	5.544***	

* $p < .05$, *** $p < .001$

본 연구의 최종경로와 표준화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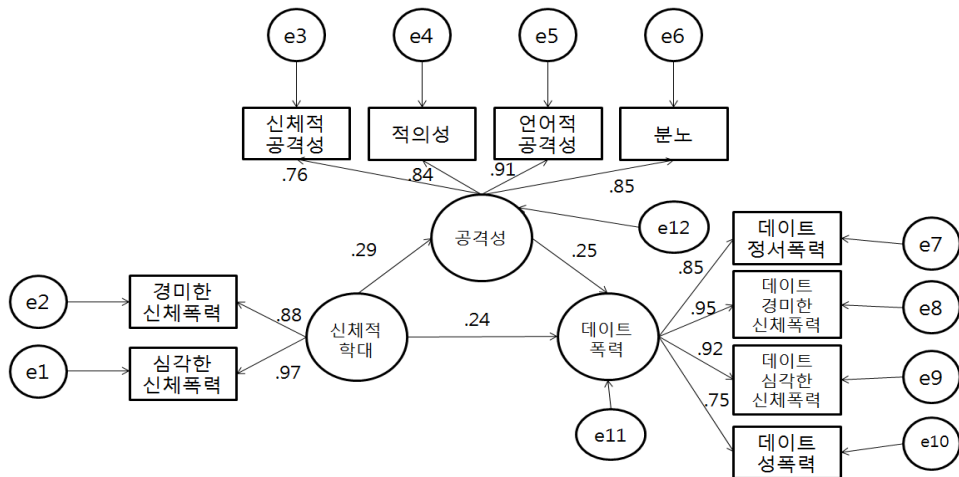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최종경로와 표준화 계수

3)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분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간접효과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이 아동기 신체학대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Aroian Test을 이용하여 다시 명확히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사용되는 공식과 관련 수치는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a(비표준화 계수):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 공격성(.477)

b(비표준화 계수): 공격성 → 데이트폭력(.157)

SEa :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 공격성(.072)

SEb : 공격성 → 데이트폭력(.028)

Aroian Test 결과 Z값이 4.25185014로 나타났고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것은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공격성이 부분 매개변수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공격성의 Aroian 검증

경로	Z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 공격성 → 데이트폭력	4.25185014***
아동기 신체학대경험 → 데이트폭력	

*** $p < .001$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의 설명요인으로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을 예측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데이트폭력의 발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인 공격성을 매개로서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요인으로서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적 태도를 신체학대경험과 함께 포괄적으로 학대 및 방임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았던 것(이지연, 오경자, 2008)

과는 달리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단독적인 영향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대상자 구성과 변수구성, 분석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변인 간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한 서경현과 이영자(200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남과 여 그리고 부의 학대와 모의 학대를 구분하였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영향력이 남녀를 포함한 청소년과 부모 학대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확인 되었다. 이것은 김진화(2010)가 확인하였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의 영향요인으로 아동기의 신체학대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정서적 변수인 공격성이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며(박순조, 2012; Bookwala et al., 1992) 학대경험으로부터 발달한 공격성이 청소년 데이트폭력에서 지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Aroian Test를 통해 공격성의 부분매개가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청소년의 공격성 상승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 모두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데이트폭력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진 아동기의 신체학대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에 노출된 학대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학대아동에 대한 개입은 선 개입 후 처리의 긴급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에는 가정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을 포함되었으며 신고접수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접수되는 지원건수는 2009년 94,683건에서 2011년 42,057건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상황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법정신고의무자 외에 일반 공동체구성원들 스스로가 학대를 심각하게 여겨 주변 이웃의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해야 하며 아동학대를 목격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지역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백서(2011)에서 나타난 아동학대 신고자 비율에서도 비신고의무자(67.5%)가 신고의무자(32.5%)보다 높게 나타나 아동학대 예방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전국에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

문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주간이나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등에 이뤄지는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대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홍보나 공중파의 공익광고 등도 고려할 수 있겠다.

둘째, 학대경험으로부터 발달가능한 공격성이 청소년의 폭력행위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이 필요하겠다. 기존 테이트폭력 연구들은 청소년 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 형성된 태도나 결과로서 나타난 역기능적 심리적 변수들을 영향요인으로 살펴보았다(강희순, 이은숙, 2010; 이지연, 오경자, 2008). 반면, 현재는 이성교제 시기가 보다 빨라지고 있으며 본 연구로부터 아동기 때 경험한 학대경험이 성인시기 이전인 청소년 시기부터 이미 부정적인 심리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로부터 확인되었다. 이것은 성인시기에 확정적인 태도로서 형성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부터 조속히 개입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시켜야함을 시사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치료·관리하는 전문적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따라서 해당 아동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시작으로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상담을 병행하여 학대를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부정적 심리요인을 안정화시키고 해소시키려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셋째, 학대받은 아동들을 목록화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이어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시기의 문제로 뒤늦게 발현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학대의 문제는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장시간 잠재되어있다 표출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학대 발견당시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수반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의 학교사회복지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학대아동들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유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더하여 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나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도 기존에 작성된 해당아동의 정보 및 상태를 함께 후임 사례관리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고무하는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과 올바른 양성평등상을 제시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미영과 문영희(2003)의 연구에 따르면 성교육 시작시기가 이룰수록 올바른 성 관념 및 태도 형성에 긍정적임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전술하였듯 현재 청소년들의 이른 이성교제 추세와도 연결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들이 미리 공교육시스템과 가정 내에서 올바른 이성교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 한다. 이성교제 프로그램이나 성 교육은 생리발달 위주의 교과서적 교육보다는 남녀의 차이와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이성교제 상대를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성(性)인격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의 인성교육으로서 실시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학대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드러난 신체적 행위에 초점을 두었으나 조사대상자들의 과거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둘째, 조사가 비용과 시간상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지역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제한된 분량으로 인해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결과 외의 실태부분제시가 미흡하였다. 예컨대, 남녀 청소년 간의 데이트 폭력 차이, 연령 별 데이트 폭력의 차이와 같은 청소년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현황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희순, 이은숙 (201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관련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3), 75-84.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2009).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정은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 9(4), 51-73.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성일 (2005). 연구논문: 가정폭력, 성역할 학습, 학교폭력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2(4), 215-241.
- 김재엽, 이순호 (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6, 109-137.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20(1), 19-32.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진화 (2010). 아동기 외상과 성인애착, 데이트 폭력의 관계. **미래놀이치료연구**, 6(2), 67-87.
- 김평화, 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41(0), 217-239.
- 김현정 (2004). **아동과 부모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비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 석말숙 (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0), 71-97.
- 김혜원 (2002). 고등학생들의 성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성인집단의 반응비교. **청소년학 연구**, 9(2), 113-138.
- 노치영, 박성연 (1992).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4), 219-230.

- 박순조 (2012). 아동이 경험한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생 각본을 매개변인으로. **교류분석상담연구**, 2(2), 1-21.
- 박하나, 장수미 (2012). 성장기 부모간폭력목적 경험과 데이트성폭력피해의 관계 피해 여대생 음주행동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49-176.
- 보건복지부 (2010). **2010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91-106.
- 송운오, 김종수, 조재현, 박배근, 김충희 (2011). 가정폭력 여성피해자 자녀의 공격성 및 우울에 대한 동물매개치료의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3), 93-105.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제2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혜정 (200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지연, 오경자 (2008). 아동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86-587.
- 임미영, 문영희 (2003). 성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남자중학생의 성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2), 223-231.
- 장윤경 (2002).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정 (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41(3), 73-91.

- 조은정 (2013). 사회적 지지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1(1), 17-26.
- 최지현 (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세리 (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봉선 (2002). 청소년 성 주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79-117.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13.
- Bentler, P. M., & Yuan, K. H. (199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mall samples: Test statistic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4, 183-199.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4), 297-311.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uss, A.,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Crick, N., &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Hershorn, M., & Rosenbaum, A. (1985). Children of marital violence: A closer look at the unintende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2), 260-266.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Kempe, C. H., & Helfer, R. E. (1972).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delphia: Lippincott.
- Matud, M. P. (2007). Dating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4), 295-297.
- MBC (2013.1.28.). ‘테이트폭력’ 목숨까지 위협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25346_5780.html 에서 2013년 4월 22일 인출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Shepard, M. F., & Campbell, J. A. (1992). The abusive behavior inventory: A measur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3), 291-305.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K.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6), 530-5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1), 75-88.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Neglect*, 22(4), 249-270.
- Sutherland, E. H. (1960). *Principle of criminology* (6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ABSTRACT

The effect of physical child abuse on date violence in youth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Cho, Choonbum* · Lee,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h that physical child abuse takes and to track how it influences date violence in youths via the raising of aggressio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for the prevention and decrease of date violence in youths. In order to do this, 690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was selec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heir responses were then analyzed. The SEM was deployed for the procedure of hypothesis verification with Amos 7.0 program. This study showed that physical child abuse and aggression have effects on date violence in youths. Aggression additionally functioned as a parameter between physical child abuse and date violence in youths. From these results, there is a need to prevent physical child abuse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to minimize the aftereffects for abused children's men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physical child abuse, aggression, date violenc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투고일 : 2013. 6. 10, 심사일 : 2013. 8. 12, 심사완료일 : 2013. 8. 30

* Sungkyul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